

2022. 11. 30.(수) 석간용

이 보도자료는 11. 30.(화) 06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부서 : 행정국 자치행정과

자치행정과장	송광남	2133-5800
행정관리팀장	명상희	2133-5820
주 무 관	신오균	2133-5825

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: 3쪽

관련 누리집	minwon.seoul.go.kr www.seoul.go.kr
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서울시, “2023학년도 취학통지서 12월2일부터 온라인으로 제출하세요”

- 서울시 취학통지서 제출 서비스는 ‘온라인’으로 확인하고 학교에 제출까지 되는 서비스
- 12.2(금)~12(월) 서울시 온라인민원 누리집에서 공동인증서로 본인확인 후 온라인 제출
- 온라인제출 서비스 미이용 학부모는 13일부터 주민센터에서 인편 등으로 전달예정

- 서울시는 12월 2일(금) 10시부터 2023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「취학통지서 온라인제출 서비스」를 실시한다고 밝혔다.
 - 2023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대상은 원칙적으로 만 6세 아동으로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아동이다.
 - 만 5세 아동이 조기입학을 희망할 경우 2022년 12월 30일(금)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전년도 입학 유예자들도 별도 연장신청이 없다면 이용 가능하다.

- 서울시가 제공하는 취학통지서 온라인제출 서비스는 취학예정 아동의 취학통지서를 인터넷 조회 후 해당 초등학교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서비스로, 이후 별도의 출력이나 제출 없이 취학통지서 제출이 완료된다. 다만, 제출 여부와는 별개로 예비소집일에는 반드시 참석하여 입학 관련 내용을 전달받아야 한다.

- 서비스 이용방법은 12월 2일(금) 10시부터 12일(월) 18시까지 서울시 누리집 (<https://www.seoul.go.kr>) 주요뉴스 배너 또는 서울시 온라인 민원 (<https://minwon.seoul.go.kr>)에 접속하여,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을 받은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.
 - 서울에 거주하는 취학아동의 세대주, 부모, 조부모 등 보호자가 이용대상이다.
 - 온라인 제출 후 취학통지서를 출력하고자 할 경우에는 온라인 민원 누리집 상단 '신청결과확인' 메뉴에서 12일 18시까지 출력이 가능하다.
 - 온라인 제출 서비스를 이용한 후 신청 기간 내에 서울시 범위에서 전입·출이 일어날 경우, 제출서비스 재신청해야하며 재신청 못할 경우 인편통지를 받아 학교로 제출하면 된다.
 - 취학통지서 발급·제출뿐만 아니라 취학 아동 및 예비 학부모에게 필요한 예방접종, 유의사항 등 관련 안내문을 다운받아 확인할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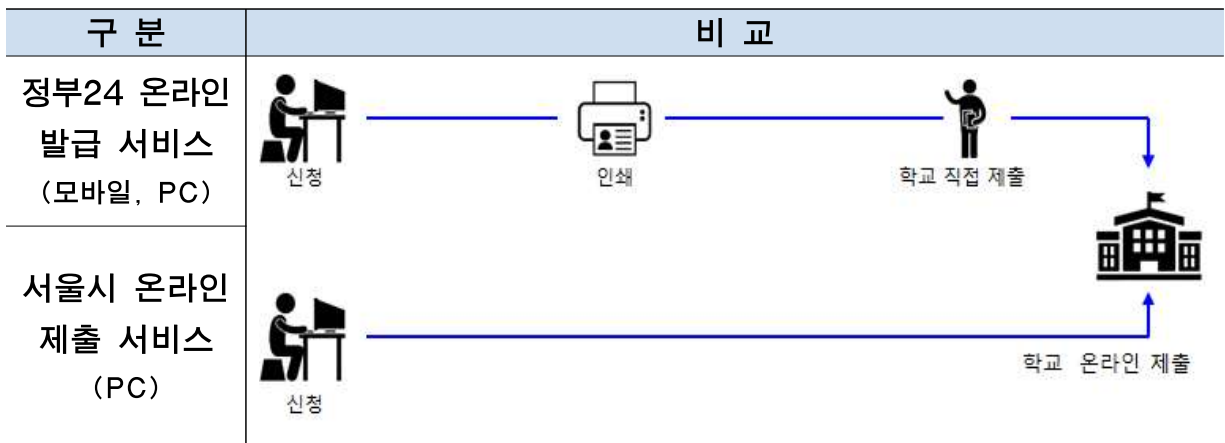
※ 안내문 종류 : 예방접종, 예비학부모, 우리동네키움센터, 서울런

- 취학통지서 온라인 제출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취학아동 보호자는 해당 동주민센터 직원이나 통장 등을 통해 13일~20일 취학통지서를 우편 등으로 전달받게 되며 입학할 초등학교의 예비소집 참석 시 제출하면 된다.

□ 정부24에서도 취학통지서 온라인 ‘발급’ 서비스를 전국단위로 시작하여 12월 2일부터 12월 12일 24시까지 운영한다.

○ 서울시 취학통지서 온라인 제출서비스는 신청과 동시에 해당 학교로 ‘발급 및 제출’을 제공하고 있으나, 정부24에서는 온라인 ‘발급’만 가능해 예비소집 참석시 취학통지서를 출력하여 직접 제출해야한다.

- 서울시·정부24 서비스 비교표



□ 송광남 서울시 자치행정과장은 “서울시 취학통지서 온라인 제출 서비스는 맞벌이 부부 등 젊은 세대의 호응이 높으며, 외부인의 방문전달이 꺼려지는 환경에서 별도의 출력물 없이 취학통지서 및 안내문들을 확인·접수할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”라며 “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를 두고 있는 서울시 학부모님들의 많은 이용과 관심을 바란다.”고 말했다.